

청소년수련관 수련활동과 학교특별활동 연계에 대한 필요성 및 관련 지도자들간의 인식에 관한 연구

전희일*

그 동안 한국사회는 청소년을 담당하고 성인기를 준비하는 역할을 전적으로 학교교육이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는 이론중심의 교육과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로부터 유리된 채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잃고, 오직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입시준비에 매달리는 결과를 초래한 바, 청소년의 전인적 육성에 실패하였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997년에 “제 7차 교육과정”을 제정하게 되었고, 2002년부터는 “공교육대실화 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가하면, 문화관광부에서는 2000년부터 “건전한 21세기 청소년 상”을 제립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성화 및 특성화 방안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전인적 인성교육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 교육 중, 학교제도권 외 교육의 하나인 청소년수련시설의 수련활동과 학교 내 교육 중 특별활동과의 연계 필요성을 연구하여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전인적, 교육적 가치 있는 통합체계의 기회를 얻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생활권 청소년수련관의 지도자들과 학교교사들의 상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인식과 기관운영에 관한 인식

* 한국청소년사랑회 회장 / 쌍문동청소년랜드 관장

을 조사하여 서로 연계할 수 있는 필요성을 모색하여 생활관 청소년수련관 및 학교특별활동의 활성화를 달성, 전인적 청소년 인성교육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본 연구 실정을 위해서는 현장조사로 질문지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으로는 학교와 청소년수련관의 활동에 관한 인지자료를 얻기 위하여 인천지역에 소재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지도자와 학교의 교사들 212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설문지 작성 및 배포와 회수는 2003년 5월과 6월에 걸쳐 추진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교와 청소년수련관의 연계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χ^2 (chi-square)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교사들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이용률 및 인지도는 낮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학교교사들 및 청소년수련관의 지도자들이 상호간에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의 학교 연계의지가 학교교사들보다 월등히 높았고,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전인교육의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되는 청소년수련관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련관이 소재하고 있는 관내 지역학교와의 특별활동과 연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야 하며, 향후 주 5일제 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뿐 만 아니라, 수련관의 적극적 홍보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적 투자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역학교도 또한 교사들의 긍정적 지역 청소년수련관 지도자와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나은 청소년 인성교육의 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은 소망있는 미래를 향유하게 될 것이며 이 나라의 장래가 밝아 질 것이다.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오늘의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에만 편중된 주입식 교육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잃었고, 오직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입시준비에만 매달리다 보니,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성을 키워주는 폭넓은 교육기회와 전인적 육성의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사회적응력이 약화된 채, 문제청소년으로 점차 빠져들어 가고 있고 급기야는 학교의 '교실 붕괴'라는 현상의 사회적 문제를 낳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우리 청소년들은 학원이나 개인지도 등으로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의 취향에 맞는 부모 맞춤형 자녀로 불편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은 스스로 자아 정체감을 상실하는 등, 학교생활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사회부적응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 붕괴의 한 요인이 되기까지 하고 있다. 최근 학교주변에 수많은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가하면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또한 활성화되지 못하여 청소년들의 전인적 인성교육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등 청소년유해시설을 순회하고 있고, 공원이나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때로는 담배, 술, 분드나 약물을 섭취하는 등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주변 사

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더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며 청소년 인성교육에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학교 이탈, 성 이탈, 유해미디어 이용 범죄행동 등 반사회적 문제행동들은 증가하고 있고, 이 같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정부당국 뿐만 아니라 각종 청소년단체와 시설 또한 각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실적 해결방안의 하나인 <학교와 지역사회 및 청소년수련시설들의 연계>가 될 것이며, 이렇게 될 때 더욱 더 많은 청소년들의 통합적인 전인적 인성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학교 교육을 중시해 온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가지는 지적교육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변화에 대한 새로운 욕구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교육기능 중시라는 현실적 요구가 제시되고 있는 현재, 학교 외적인 교육요소와 학교 내적인 교육요소가 통합되어진다면 청소년의 전인적 인성교육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같은 전제를 감안할 때, 생활권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수련활동과 지역 내 인근 학교들 간의 특별활동이 서로 연계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성화도 이루며 학교발전에도 기여하여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와 청소년수련관의 연계활동에 대한 이 같은 노력이 아직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며 최근의 한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이용이 8%에 불과하다는 지

적이 있음을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의 청소년 교육은 제도권인 학교 교육에 치우쳐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에 학교 교육의 특별활동과 지역 청소년수련관의 수련활동에 대한 연계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 교사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연계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조사, 연구하여 지역 청소년수련관 및 학교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논문의 과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은 청소년수련시설 중 생활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 학교와의 연계활동을 통한 활성화와 아울러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교육에 이바지 하고자 하여 지역 학교교사 및 청소년수련관 지도자들의 활동 연계의식을 조사, 연구하고 나아가 학교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들에게 교육적 동기를 부여하여 학교 특별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활동에 대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내에는 2003년 1월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이 675개가 있고 이 중 생활권수련시설이 265개소, 자연권수련시설이 337개소, 유스호스텔이 73여 개소 있다(문화관광부, 2003). 그러나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들 중 39.9%의 청소년들만이 전국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한 조사 발표(이광호, 1997)가 있으며,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생활권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이용률이 고작 8%에 불과하다는 발표도 있어, 아직도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도는 극히 저조한 형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교육적으로 급선무일 것이며, 이용률 제고 방안의 하나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수련활동과 학교특별활동의 연계>를 모색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진인적 교육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문제 청소년들의 증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유익한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첫째, 학교 교사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고, 둘째, 청소년수련관 지도자들의 학교 특별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며, 셋째, 청소년수련관의 수련활동과 학교 특별활동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수련활동 활성화 및 학교 특별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 청소년 지도자와 학교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는 연구자의 임의대로 인천지역에 소재한 일부 지역학교와 생활권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학생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국내 청소년정책의 전체자료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수련활동 환경의 변화

청소년수련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활동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여가문화의 확산과 그에 따른 문제이다. 그 동안 청소년활동 영역에서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활동참여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다. 그러나 여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단순히 활동시간의 확보 이상으로 새로운 창조적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질적 차원의 인식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와 맞추어 새로운 여가문화 정착과 아울러 인식의 변화로 인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청소년수련관과 지역학교는 이에 대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현실이다.

청소년 육성분야에 있어서 정책적 방향의 틀을 마련한 분기점은 1991년부터 수립·시행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다. 이후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제 1차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이 수립·시행되었고, 그 후 정책의 내용과 방법의 측면에서 본격적인 전환기를 마련한 것은 1998년에 수립되어 2002년까지 시행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었고, 2003년부터 적용되는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또한 그 목표와 방향, 기조에 있어서는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현실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계획과 제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원해야 하나 그 목표와 방향까지도 현실적 수준에 안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정책적 환경이나 정책의 목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 상황으로의 실천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청소년 정책의 방향은 기존의 정책계획의 기본적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기 보다는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기본적 입장을 취하되, 오늘날 청소년의 변화된 문화적 감수성과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세대 간의 이질적인 차이와 단절을 청소년 활동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김민 외, 2002),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따른 새로운 청소년 정책과 법적, 제도적 정비를 요구하고 있음을 볼 때 이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2. 제7차 교육과정과 주5일제 수업

1) 제7차 교육과정 내용과 특징

그 동안 한국사회는 청소년을 담당하고 성인기를 준비하는 역할을 전적으로 학교 교육이라는 제도권이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학교는 이론중심의 교육과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로부터 유리된 채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잃었으며, 오직 학교라는 울

타리 안에서 입시준비에 매달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학교는 청소년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전인적 인간성 육성에 실패하였고, 최근 “교실붕괴”라는 현상의 사회적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어 청소년 교육의 심각성을 더 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교육부에서는 “공교육내실화 추진기획단”을 마련하여 공교육을 진단하는 한편, 내실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기본교육의 충실과 창의력 및 인성 교육을 통한 학교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7년에 제정된 7차 교육과정에서 공교육의 내실화 대책으로 2000년에 초등학교 1,2학년에 적용된 것을 처음으로 2001년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1학년, 2002년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03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으로 2004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차례로 적용이 된 것으로 계획하고 그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유진이, 2002).

이 같은 7차 교육과정의 개정내용은 21세기의 학교교육의 모습을 전망하면서 교육여건과 환경이 조성된 인간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이나 학교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의 교육과정에 대한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체제가 교육과정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의 경영책임자인 교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가의 위치를 확보하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 안주해 있기보다는 교육실천이 이루지는 학교현장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흐름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하여 나가는 인식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육과정 기준 자체의 타당성이나 적합성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앞으로는 "학교현장에 주어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융통성,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교육목표 실현의 보다 더 중요한 변인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 학교는 현재 정부가 실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방안과 더불어 지역사회 청소년수련시설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적극적이고도 창의적이며 융통성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 개정내용의 주된 특징이다. 이외에도 재량활동이 신설되는 등 법정시간으로 정해진 교과 외 활동시간을 포함한 체험중심 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 그 특징이다.

재량활동은 학교에서 선택하여 내용을 정하는데, 교과재량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하여 한문, 생활외국어와 같이 교과와 관련된 활동이나 인성교육, 컴퓨터와 같은 비 교과서 활동을 포함한다.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및 행사활동으로 구분된다(특별활동은 기존의 활동을 포괄하면서 영역을 세분화하였으며 이수해야 할 시수를 강화하였음).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과 같이 법정시간으로 정해진 교과

외 활동 이외에도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특기적성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이른바 체험학습이 대부분의 학교연간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교과와 연결되거나 또는 교과 외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에서 모두 준비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결국 학교 밖의 자원들과 연계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자원의 실태로서 지역 청소년수련시설과의 연계 및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김 민 외 2002)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 내 외에서 공동으로 청소년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은 온전한 인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아울러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교육과정의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응하는 학교당국과 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운영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주 5일제 수업의 교육여건 변화와 청소년수련시설의 관계

(1) 주 5일제 수업의 도입 배경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이러한 시대 변화에 자기 주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해야 하는 평생학습사회라고 할 수 있기에 학교 교육이 모든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세계 여러 나라는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기초·기본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스스로 배우는 의욕 및 사고력, 판단력과 적응력 등의 자질과 능력을 중시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배려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교사중심의 교실과 학교 울타리 안에서의 교과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열린교육 환경에서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자연 속에서 다양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주 5일제 수업」을 나라마다 실시하고 있고, 우리 나라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주 5일제 수업」을 실시, 조만간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논의가 교육계는 물론 산업계, 언론계, 정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주 5일 근무제'와 더불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 5일제 수업」은 '주 5일 근무제'라는 교육 외적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기보다는 학생중심의 학습기회 마련, 가정·사회의 교육적 기능회복이라는 교육 내적논리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학교 운영방법의 변화 즉, 교육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 5일제 수업」의 최종목표는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며, 나아가 가족과의 유대증진과 지역에서의 사회체험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시키며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교육환경 변화를 위한 학교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주 5일 수업제와 청소년수련활동의 역할과 대응책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회적 환경변화로 예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주 5일 근무제이다. 실시 시기에는 변동이 있겠지만 사회전반의 여가시간이 확대되고 청소년을 위한 활동시간의 확보를 요구해 온 청소년분야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일본과 중국 등의 외국 사례를 보면,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반드시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는 여가보다는 일 중심의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교육열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확대우려와 우리 사회가 그간 안고 있었던 병폐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예외는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5일제 근무형태가 도입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2004년부터 월1회 실시하는 시범학교 운영 등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주5일 근무제'란 기업체의 근무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반인들의 사회생활 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주 5일제 근무가 확대·실시된다면, 사회전체의 여가시간 확대로 지역문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되면서 부가적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소비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사회 전반적으로 여가의 개념이 실제 일상생활 속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된 것이다. 청소년 특히 학교청소년과 관련하여 볼 때, '주5일 근무제'란 학교의 주5일 학습제도와 연계된다. 이는 좁은 의미로는 교육적 측면, 학교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보다 넓은 관점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생활방식의 변화라는 사회적 관점으로 보

아야 한다. 즉, 청소년수련관 입장에서는 학생 청소년들이 5일간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 시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이후의 새로운 형태의 여가시간(부모와 함께 보내는 2박 3일의 기간)확보와 이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참고로, 2001년 1월,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한겨레신문과 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5일제 수업의 도입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견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교사(95.9%)와 학생(95.2%)은 '주5일제 수업도입'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여론 선도층(79.8%)도 대부분 '주5일제 수업도입'에 찬성했다('매우 찬성한다' 36.2%, '찬성하는 편이다' 43.6%). 그러나, 학부모는 5명중 3명 정도가 찬성(59.6%)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편이었다(참고: 표Ⅱ-1). 이러한 결과는 학교라는 '보호막'을 잃어버리게 될 것에 대한 부모의 우려적인 입장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표Ⅱ-1> 주5일제 수업의 도입에 대한 의견

<단위:%>

응답 특성	사례수 (명)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매우+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반이다+매우) 반대한다	모름/ 무응답
교사	330	59.1	36.7	95.8	3.3	0.9	(4.2)	-
학부모	302	19.9	39.7	59.6	29.5	10.6	(40.1)	0.3
학생	440	79.3	15.9	95.2	2.7	2.0	(4.8)	-
여론선도층	188	36.2	43.6	79.8	18.1	1.6	(19.7)	0.5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의뢰로 한겨레신문과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임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집

단구분에 관계없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이어서 ‘희망자를 위한 주말교실 마련’, ‘제도 및 법령의 정비’를 제시했다(참고: 표Ⅱ-2). 이러한 응답 결과를 청소년수련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생 및 부모를 비롯한 수요자들은 2일간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표Ⅱ-2>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할 경우 미리 준비해야 할 내용

<단위:%>

응답 주체	사례수 (명)	희망자를 위한 주말 교실 마련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교사의 재교육	제도 및 법령의 정비	기타	모름/ 무응답
교사	330	14.5	57.3	2.4	22.1	2.7	0.9
학부모	302	23.8	61.6	7.0	6.6	1.0	-
학생	440	26.6	54.5	5.9	7.7	3.6	1.6
여론전도층	188	26.6	46.3	5.9	19.7	-	1.6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의뢰로 한겨레신문과 접점에서 조사한 결과임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고 학교의 5일제 수업이 실시된 이후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여가 시간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형성과 이를 위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우선, 토·일요일을 여가시간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청소년 프로그램의 참여가능 시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운영모형의 변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 기타 유관기관의 프로그램 및 자생적인 동아리·동호회 활동 등을 통한 건전한 시간활용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

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한 서비스의 방향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청소년지도자들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3. 학교교육과 청소년수련활동의 통합

1) 학교수업과 청소년수련활동과의 협력관계

‘주5일제 수업’의 전면적 실시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여가시간은 증가하고 아울러 청소년교육과 생활지도에 대하여 한 층 더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주5일제 수업’의 시행으로 청소년 주도형의 학습과 여가활동 등의 문제가 예견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학교편중교육의 장이 가정과 지역사회 등 학교 밖으로 확대되는 새로운 교육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따라서 ‘주5일제 수업’의 시행으로 생기는 시간과 틈새를 적극적인 체험활동이나 학습의 기회로 삼아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것은 각종 체험활동과 학습거리를 제공하면서 각종 문제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연계협력 체제구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들, 즉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체육시설 등과 기업체 등을 연계한 체험활동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유진이, 2002) 이에 대한 지도자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학교의 '주5일제 수업'의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학교 내에서 학생이었던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당연히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역할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발달과정면에서 청소년으로서의 주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와 학교 밖 경험이 연속성을 가지고 통합되어 질 때 가능하다. 예컨대 학교 내에서 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교과학습, 특별활동 및 체육활동을 병행함과 동시에 학교밖에서도 전인적 성장을 위해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 활동을 통합해 나가는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유진이, 2002). 특히, 이 같은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특별활동과 지역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 수련시설과 연계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청소년 전인교육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이미 살펴 본 바대로, 자연권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학교와의 원거리에 위치하여 있어 학교와의 통합교육이 어렵지만, 그러나 생활권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내 학교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학교와의 연계를 가지고 통합교육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특별한 상황에 의하여 지역 내 학교 밖 교육시스템과의 연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그런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은 지역 내 유해환경으로 점점 내 물리고 있으며, 그곳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등 청소년 교육에 있어 부정적인 환경적 변인에 의하여 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교육 또한 '제 7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교현장에서의

자유성, 융통성,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의 교육목표를 이루려 노력하고 있고, 주 5일제 수업실시로 더욱 청소년 인성교육에 이바지하려 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이 같은 개선책이 있음을 전제 할 때, '제 7차 교육과정'은 청소년 육성 분야에서 향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 또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현황 및 문제점

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대체로 청소년수련관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대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수련관은 학교에 대해 청소년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설을 홍보하기도 하며, 일부 수련관에서는 학교 측의 이용요구가 과잉상태인 곳도 있다. 현재 학교시설의 여건상 특별활동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큰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보다 더 꼼꼼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수련관은 공간에 안주하여 청소년을 맞이하는 프로그램 위주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와 청소년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지역 및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특기 적성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 학교방문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학교와의 연계활동은 여전히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상당사업은 일부 수련관에서 학교 연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음).

그 동안 학교에 대한 연계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

교와 지역 수련관의 연계협력은 모든 지역에서 원활하지는 못했다. 시설 내부적으로 학교 연계사업은 시·도의 방침이나 이용인원 확대를 위한 대관 형태로 부분적인 연계추진에 그치는 상황이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연계가 어려웠던 이유는 시설 기관장 또는 위탁기관 차원에서 기관의 운영방침과 목적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실무자 입장에서도 필요성 및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게 공유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단위 수련시설에서 학교 연계사업과의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에 적극 관여하지 못한 채, 관행적이거나 혹은 사회적 변화흐름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측면이 강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변화에 기초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학교는 교육과정의 변화, 교수-학습내용에 대한 변화의 요구와 정책적 추진에 따라 다양한 체험중심의 활동 프로그램 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급처의 다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학교 연계부문은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수요자 확보 자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교연계부문에 있어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구체적인 문제로 부상할 여지가 크다.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이나 특별활동, 수련활동 및 단체활동 등 체험학습 관련분야를 중심으로 청소년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을 경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연계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논의에 기초한다.

이를 위해 목적사업으로 수련시설 및 단체에서 학교의 체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궁극적으로 자체적인 인력과 시설로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문제는 현실적인 여건

상 학교연계의 교두보인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인 전문인력을 상근인력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근 지도인력이 과연 이런 체험학습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평가도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현실적으로 자체인력 및 시설을 활용한 전문적 체험 학습프로그램 제공이 어렵다면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 협력함으로써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학교 내에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외부의 전문강사 초빙에 의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청소년사업으로서의 전문성과 특성확보를 위해서라도, 자체적인 기획에 의해 콘텐츠는 개발하되 실제 운영은 해당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협력(위탁/대행)하는 방식(out-sourcing과 co-sourcing)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계협력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은 추가 투자요인을 줄이면서 동시에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수련관 운영의 안정화와 청소년 프로그램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분야에서의 체험활동과 학교 체험학습과의 개념적 차이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수련관이 학교의 체험학습을 위한 보조 학습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수련관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doing by doing) 그 자체에 초점을 둔다. 이에 비해 학교의 체험학습의 목적은 학습을 위한 방법으로 체험적 활동(learning by doing)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는 평생교

육사업, 즉 강좌중심의 프로그램으로는 경쟁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청소년수련관의 본질적인 기능과도 부합되지 않게 된다. 타 학습기관과의 차별성도 문제가 되고 자체인력에 의한 전문성도 쉽게 확보할 수 없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으로서의 본질적인 개념과 내용을 유지하면서 학교로부터 요청 받아 프로그램 내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수련관은 체험학습 시행기관이라기보다는 체험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이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청소년활동의 본질적인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체험중심의 활동을 보다 특성화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찾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Ⅲ.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생활권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수련활동과 지역 학교특별활동과의 연계를 위한 학교교사 및 청소년지도자의 인식을 연구하기 위하여 질문지 방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수련관의 학교연계와 학교교사들의 지역청소년수련관의 이용에 따른 지도자들의 인식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들의 상호 연계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자세히 기술하면서 이와 관련한 참고문헌 및 자료집 등을 참고로 해

서 연구자가 질문지를 작성한 후에 내용을 보완, 수정하였다. 본 질문지는 인천광역시 소재 생활권청소년수련관의 지도자들과 인천소재 중·고등학교 재직교사 230명에게 배포하였고, 그중 212매를 회수하였다.

2. 연구의 기간

본 연구의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고찰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3월3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질문지 작성 및 배포와 회수는 2003년 5월과 6월에 걸쳐 추진하였고 연구결과 분석 및 자료처리는 6월중에 이루어졌다.

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지도자 및 학교 특별활동 교사의 인지도와 상호 연계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χ^2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IV-1,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IV-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학교교사)

변 인		빈 도	%
학 교	중학교	87	79.8
	고등학교	22	20.2
성 별	남 자	34	31.2
	여 자	75	68.8
연령별	39세미만	53	48.6
	40세이상	56	51.4
합 계		109	100.0

<표IV-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청소년지도자)

변 인		빈 도	%
성 별	남 자	43	41.7
	여 자	60	58.3
연령별	29세미만	45	43.7
	30세이상	58	56.3
합 계		103	100.0

성별 특성은 남자 77명(36.3%), 여자 135명(63.7%)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많이 응답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자가 103명(48.6%), 학교교사가 109명(51.4%)이었으며, 학교교사의 경우 중학교 재직교사(79.8%)가 고등학교 교사(20.2%)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다.

2. 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실태

1) 학교교사의 청소년수련시설 인식 정도

학교교사들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아는 정도는 <표Ⅳ-3>과 같다.

‘귀하는 지역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알고 있다’가 46명(42.2%), ‘들은 적이 있다’가 54명(49.5%), ‘잘 모르겠다’ 9명(8.3%)으로 응답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학교교사들이 지역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3> 수련시설 인식 정도

구 분	인식 정도			전 체	χ ² 검증
	알고있다	들은적이있다	잘모르겠다		
남 자	14명(41.2%)	18명(52.9%)	2명(5.9%)	34명(100.0%)	NS
여 자	32명(42.7%)	36명(48.0%)	7명(9.3%)	75명(100.0%)	NS
전 체	46명(42.2%)	54명(49.5%)	9명(8.3%)	109명(100.0%)	

2) 교사의 수련시설 이용 실태

‘귀하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신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의 <표Ⅳ-4>와 같다.

성별 및 연령에 관계없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7.5%에 불과하지만 향후 지역청소년수련관의 이용은 증가할 것으로 다른 질문의 답변에서 나타나고 있다.

χ^2 (chi-square)검증결과 성별 및 연령이 응답항목과 관계가 없음을 수 있다. 즉, 교사들의 청소년수련관 이용실태는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Ⅳ-4> 학교교사들의 청소년수련관 이용 실태

구 분		한다		안한다		계		χ^2 검증
		f	%	f	%	f	%	
성 별	남자	9	26.5	25	73.5	34	100.0	NS
	여자	21	28.0	54	72.0	75	100.0	
연 령 별	39세미만	11	20.8	42	79.2	53	100.0	NS
	40세이상	19	33.9	37	66.1	56	100.	
계		30	27.5	79	72.5	109	100.0	

3. 청소년수련관 이용 및 운영의 문제점

1) 학교교사의 수련관 이용에 대한 문제점

‘귀하께서는 만약 인근 지역 청소년수련관에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연계 요청을 해 줄 경우,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표Ⅳ-5>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Ⅳ-5> 청소년수련관 이용요청에 대한 학교 교사의 대응도

구 분	연계대응			전 체	x ² 검증
	적극협의	긍정적상담	무관심한다		
남 자	12명(35.3%)	19명(55.9%)	3명(8.8%)	34명(100.0%)	NS
여 자	35명(46.7%)	32명(42.7%)	8명(10.7%)	75명(100.0%)	NS
전 체	47명(43.1%)	51명(46.8%)	11명(10.1%)	109명(100.0%)	

<표Ⅳ-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교교사들에게 프로그램 연계 요청을 할 경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98명(89.9%)이 응답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1명(10.1%)이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교사들이 수련관과 연계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x²검증결과 성별과 응답항목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청소년수련관과의 연계에 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는 <표Ⅳ-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의 업무 및 제도적 문제라고 답변한 경우가 전체의 22.0%(24명)

를 차지하고, 수련관의 인식의 문제라고 답변한 경우는 26.6% (29명)를 차지했으며, 자신의 수련관에 대한 정보의 부재라고 답변한 경우도 27.5%(30명)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무응답이나 기타 이유로 답변한 경우도 23.9%(26명)나 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다양한 응답을 하고 있으며, 본 문항의 χ^2 검증결과 성별과 응답항목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Ⅳ-6> 학교와 지역 청소년수련관과의 연계에 관한 문제점

구분	문 제				전 체	χ^2 검증
	학교업무 및 제도문제	수련관 인식문제	수련관 정보 부재 문제	무응답/기타		
남자	3명(8.8%)	12명(35.3%)	11명(32.4%)	8명(23.5%)	34명(100.0%)	NS
여자	21명(28.0%)	17명(22.7%)	19명(25.3%)	18명(24.0%)	75명(100.0%)	NS
전체	24명(22.0%)	29명(26.6%)	30명(27.5%)	26명(23.9%)	109명(100.0%)	

‘귀교에서 행하는 연간 학사일정 편성 시, 지역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특별프로그램을 기획할 경우 전문 청소년지도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표Ⅳ-7>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Ⅳ-7> 학교의 외부 청소년전문가와와의 협의유무

구 분	협의 유무		전 체	χ^2 검증
	협의한다	협의안한다		
남 자	3명(8.8%)	31명(91.2%)	34명(100.0%)	NS
여 자	12명(16.0%)	63명(84.0%)	75명(100.0%)	NS
전 체	15명(13.8%)	94명(86.2%)	109명(100.0%)	

<표Ⅳ-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교사들의 성별에 관계없이 외부 지도자들과의 협의 및 접촉을 꺼려하고 있는 기존의 경향을 아직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어, 지역 청소년수련관과의 연계프로그램의 실시는 희망하지만, 교내 프로그램에 관한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 청소년지도자들의 수련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지역학교에서 귀 수련관에 연계 프로그램을 요청해 오지 않는다면 귀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표Ⅳ-8>에서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의 지도자들은 응답자들의 89.3%인 92명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응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χ^2 의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성별, 연령별, 직위별과 응답항목에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Ⅳ-8> 학교 無 요청에 관한 청소년수련관의 대응도

구 분		대응도		전 계	χ^2 검증
		무관심	적극적대처		
성별	남자	5명(11.6%)	38명(88.4%)	43명(100.0%)	NS
	여자	6명(10.0%)	54명(90.0%)	60명(100.0%)	
연령별	29세미만	6명(13.3%)	39명(86.7%)	45명(100.0%)	NS
	30세이상	5명(8.6%)	53명(91.4%)	58명(100.0%)	
직위별	일반직	10명(11.4%)	78명(88.6%)	88명(100.0%)	NS
	관리직	1명(6.7%)	14명(93.3%)	15명(100.0%)	
계		11명(10.7%)	92명(89.3%)	103명(100.0%)	

‘청소년 지도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6.9%인 38명이 재정적 빈곤을 지적했고, 그 이외에도 시간부족, 프로그램의 미비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χ^2 검증결과 성별과 응답항목에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Ⅳ-9> 청소년지도과정의 어려운 점

구분	지도과정의 어려운 점				전체	χ^2 검증
	기관장 이해 협조부족	프로그램 미비	재정적빈곤	지도자료 빈곤		
	시간부족	지도능력 기술부족	청소년 이해부족	기타		
남자	2명(4.7%)	4명(9.3%)	16명(37.2%)	3명(7.0%)	43명 (100.0%)	NS
	12명(27.9%)	1명(2.3%)	4명(9.3%)	1명(2.3%)		
여자	7명(11.7%)	11명(18.3%)	22명(36.7%)	4명(6.7%)	60명 (100.0%)	NS
	7명(11.7%)	4명(6.7%)	1명(1.7%)	4명(6.7%)		
전체	9명(8.7%)	15명(14.6%)	38명(36.9%)	7명(6.8%)	103명 (100.0%)	
	19명(18.4%)	5명(4.9%)	5명(4.9%)	5명(4.9%)		

‘귀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에 46.6%인 48명이 시설의 부족을 지적하였고, 이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을 순차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표Ⅳ-10>에 나타나고 있다.

<표Ⅳ-10>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미비점

구 분	수련관 운영의 미비점			전 체	x ² 검증
	시설부족	운영방법부족	직원전문성부족		
	프로그램부족	학교연계부족	기 타		
남 자	22명(51.2%)	6명(14.0%)	3명(7.0%)	43명(100.0%)	NS
	7명(16.3%)	3명(7.0%)	2명(4.7%)		
여 자	26명(43.3%)	1명(1.7%)	9명(15.0%)	60명(100.0%)	NS
	12명(20.0%)	4명(6.7%)	8명(13.3%)		
전 체	48명(46.6%)	7명(6.8%)	12명(11.7%)	103명(100.0%)	
	19명(18.4%)	7명(6.8%)	10명(9.7%)		

4. 학교와 지역 청소년수련관과의 연계 의지

1) 청소년수련관의 학교와의 연계 의지

‘만약, 지역학교와 새로운 연계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의 <표Ⅳ-11>와 같다. 성별에 관계없이 협조하지 않거나, 무관심 하는 지도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응답자 전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협조한다고 응답했다.

x²검증결과 성별에 관계없이 응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본 실태조사를 통하여 청소년수련관의 학교와의 연계 추진을 강력히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Ⅳ-11> 수련관의 학교와의 연계 대응도

구 분	새 연계프로그램 대응도		전 체	x ² 검증
	적극적 대처	협조한다		
남 자	21명(48.8%)	22명(51.2%)	43명(100.0%)	NS
여 자	40명(66.7%)	20명(33.3%)	60명(100.0%)	NS
전 체	61명(59.2%)	42명(40.8%)	103명(100.0%)	

‘만약, 귀하께서 학교와의 연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구체적인 대응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서 응답결과는 <표Ⅳ-12>와 같다.

<표Ⅳ-12> 수련관의 학교와의 구체적 연계 대응책

구분	구체적 연계 대응책				전 체	x ² 검증
	지역학교 방문	내부기획 후 연계요청	연구하면서 점차 시행	담당자의논후 학교통보상담		
남자	18명(41.9%)	11명(25.6%)	5명(11.6%)	9명(20.9%)	43명(100.0%)	NS
여자	35명(58.3%)	13명(21.7%)	2명(3.3%)	10명(16.7%)	60명(100.0%)	NS
전체	53명(51.5%)	24명(23.3%)	7명(6.8%)	19명(18.4%)	103명(100.0%)	

위의 <표Ⅳ-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74.8%인 77명의 청소년지도자들이 내부적으로 기획을 거쳐 지역학교와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연계협의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 수련관에서 학교연계프로그램을 1주일에 몇 시간정도 실

시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표Ⅳ-13>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Ⅳ-13> 청소년수련관의 학교 연계프로그램 활용시간

구 분	주 당 학교연계프로그램 활용시간			전 체	χ ² 검증
	1-2시간	3-4시간	5시간이상		
남 자	9명(20.9%)	14명(32.6%)	20명(46.5%)	43명(100.0%)	NS
여 자	22명(36.7%)	12명(20.0%)	26명(43.3%)	60명(100.0%)	
전 체	31명(30.1%)	26명(25.2%)	46명(44.7%)	103명(100.0%)	

위의 <표Ⅳ-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청소년수련관이 일주일에 5시간이상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응답(44.7%)하고 있어, 청소년수련관의 지역학교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연계할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 학교교사의 청소년수련관과의 연계 의지

‘귀하께서는 지역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표Ⅳ-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응답자의 97명(89.0%)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전체응답자의 12명(11.0%)만이 ‘아니오’라고 응답하고 있어, 학교교사들도 역시 청소년수련관의 활동과 연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4> 학교와 청소년수련관과의 특별활동 연계 필요성 유무

구 분	특별활동 연계 필요성 유무		전 체	x ² 검증
	예	아니오		
남 자	33명(97.1%)	1명(2.9%)	34명(100.0%)	NS
여 자	64명(85.3%)	11명(14.7%)	75명(100.0%)	
전 체	97명(89.0%)	12명(11.0%)	109명(100.0%)	

‘학교와 지역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연계할 경우 학교와 학생 및 수련시설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서 응답 교사들의 82.5%인 90명이 수련관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쌍방 모두가 유익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은 불과 19명인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5>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할 경우의 유익 여부

구 분	유익여부			전 체	x ² 검증
	매우유익	유익하다	잘 모르겠다		
남 자	4명(11.8%)	22명(64.7%)	8명(23.5%)	34명(100.0%)	NS
여 자	16명(21.3%)	48명(64.0%)	11명(14.7%)	75명(100.0%)	
전 체	20명(18.3%)	70명(64.2%)	19명(17.4%)	109명(100.0%)	

이외에도 ‘주 5일제 수업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학교) 등과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연계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라는 서술형 질문에서, 많은 학교교사들과 수련관의 청소년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학교 교사들의 구체적 방안들을 보면,

- 학교 내에서 서클룸을 만들고 상담과 친교의 시간을 가진다. 한 달에 한번 시간을 내어 학교수업 할애하여 문화체험의 기회를 주며, 학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 관련 교사와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연계로 많은 청소년지도자를 학교에 투입, 학교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원내력을 가지고 실시한다.
- 청소년프로그램 담당자가 직접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
- 청소년시설과 자매결연을 실시한다.
- 청소년수련관내 직원들 간의 정보공유 후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의 대화를 개선한다.
- 청소년약물오남용 예방사업, 청소년 학습부진프로그램, 학교장기결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학교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의 성격을 활용, 정기적 학급단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예비학교 프로그램 및 학습동기 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등으로 서술형 답변에서 요구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C.A활동
- 부영이캠프 등 각종 주말 캠프
- 특기적성활동 및 체험활동
- 체험위주의 자원봉사프로그램

- 영화상영
- 음악, 체육, 창작프로그램
- 주말 체험프로그램
- 청소년 취미교실 및 동아리활동
- 인성개발활동 강화
- 토요체험 및 수련활동
- 주말체육실시
- 봉사교육 및 약물예방교육
- 자연 친화적 프로그램 실시 등 여러 가지 청소년에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수련시설 중 생활권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프로그램 연계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청소년수련관과 학교교사간의 연계 방안의 하나로 생활권 청소년수련관 권역에 소재 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의 특별활동을 활용, 이와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육성과 전인적 인성교육에 기여하고자 지역학교와 생활권 청소년수련관의 연계 필요성을 모색하면서 학교교사 및 청소년지도자들의 인식의 전환을 이끄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 지역 청소년수련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인지하고, 나아가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

사와 청소년지도자들의 인식의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임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 소재 한 생활권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자 103명과 인근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109명 등 총 212명의 청소년지도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지 응답자의 성별 분석을 보면, 대체적으로 학교 교사 및 청소년수련관 지도자 모두 여성(63.6%)이 남성(36.4%)보다 많이 응답했고, 학교 교사의 경우 중학교 교사(79.8%)가 고등학교 교사(20.2%)보다 더 많이 응답했다. 이는 청소년교육에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하게 많이 배치되어 있고, 고등학생 청소년보다 중학생 청소년의 지도가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이기도 하다.

교사의 경우, 대체적으로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57.8%)이며, 특히 교사의 청소년수련관 이용실태는 전체 응답자의 27.5%에 불과하여 지역 내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 홍보부족이나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학교 교사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학교 교사의 업무과다와 학교 자체의 제도적 문제나 혹은 수련관에 대한 정보부재, 인식의 부재 등으로 그 이유를 응답하고 있어, 학교와 지역 청소년수련관과의 연계 활동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학교 교사들의 년 초 연간행사 기획 시, 외부 청소년지도자와의 협의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86.2%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학교의 외부에 대한 두터운 벽을 실감할 수

있었다.

청소년수련관의 지도자 부분에서는, 수련관 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시설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학교와의 연계 활동을 상당히 접근해 보려고 노력(89.3%)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나, 시간부족, 프로그램 미비, 전문성 결여 등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와 지역 청소년수련관의 연계는 이제 청소년지도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자 모두 서로 연계하기를 희망(교사 89% / 지도자 98%)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안제시와 더불어 공동연구와 같은 형태로 연계방안을 살펴 나갈 때, 우리 청소년들의 온전한 인성교육이 이루어 질 것이며 아울러 이 나라의 장래는 밝아 질 것이 분명하다.

이 같은 학교와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 조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와 지역 청소년수련관이 각종 전문프로그램으로 지도력 연계를 해야 함을 중점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는 특별활동, 재량활동 및 주5일제 수업을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청소년수련관은 학교의 이 같은 활용의도를 사전에 감지하고 시설의 재편성 및 전문지도력 확보,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런 활동의 연계를 위하여 학교 교사와 수련관의 청소년지도자들간의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함이 요구되고 있다.

2. 제 언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교사나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서로 프로그램을 연계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학교교사들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미흡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자들 또한 지역학교와의 연계와 부모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에 부족한 점이 있음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청소년지도자 및 학교교사들은 지역 청소년들의 전인적 인성교육을 위해 서로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곧 시행될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의 학교연계는 가장 절실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더구나, 7차 교육과정의 ‘학교 밖 사회문화활동 참여이수 인증제’ 도입이 현실화 될 경우, 이를 대비한 청소년수련활동 전문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생활권청소년수련관은 재정 및 시설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으나,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당국은 속히 이러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청소년들에 유익한 인성교육의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수련관의 수련활동과 지역학교와의 특별활동 연계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사회의 거점과 Hub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수련관 자체의 청소년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와의 청소년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특별프로그램 유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셋째, 지역학교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학교 밖 교육시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여 청소년수련시설과의 프로그램 공유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주 5일제 수업과 관련하여 지역학교는 인근 생활권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자들과 공동으로 협의하여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등을 청소년들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체험적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청소년육성을 위한 지역공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지역학교는 매년 학기 초 연중 계획서 작성 시, 지역 청소년지도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연계프로그램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국내의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학교 및 지역사회(청소년수련시설), 학부모 등이 팔을 겨뒀 붙이고 공동으로 연계하여 지역청소년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학교의 특별활동과 청소년수련관의 수련활동 연계는 상호간에 서로 필수적이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지도자와 학교 교사들의 활동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때,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는 보다 밝고 아름다워 질 것이다.

참고문헌

- 구태익(2000). 한국청소년수련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이중(1996).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1995). 청소년여가활동의 실태와 개선방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권일남(1999). 21세기 청소년수련활동의 다양화와 수련시설의 특성화,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1999). 지역사회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과 역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김근수(2000). 청소년수련활동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 민 외(2001). 청소년수련관 운영활성화방안연구, 문화관광부.
- 김성수, 권일남(2001). 청소년수련활동지도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정대(2001). 청소년참여를 통한 리더십 생활기술 프로그램 개발,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명(1993). 청소년활동 전개의 방향과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1991). 청소년활동 동기부여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 _____(1993). 청소년의 선호도에 기반한 수련활동시설의 유형구분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김정주(1998). 지역청소년센터 운영모델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은식(2001).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화관광부(2002).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_____ (2002). 청소년수련관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주성대학.

_____ (2002).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운영권설통사업결과,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자료집.

박성희 외(1995). 청소년과 지역사회,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박성희(1995). 청소년기관운영,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박혜정(1997). 청소년생활권수련활동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치선(1993). 대학생 청소년수련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청소년학회.

_____ 외(2001). 청소년지도학, 학지사.

유진이(2002). 청소년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지도방안, 성산연구논문.

_____ (2002). 청소년수련관 공간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_____ (2001).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 방안, 성산청소년연구소.

_____ (2000). 생활권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진이·김향자(2002). 생활권수련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여가교육, 성산연구논문

- 이광호 외(1997).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체계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광호, 전명기 외(1999).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교육부.
- 이민희 외(2001). 청소년의 문화산업 참여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영숙 외(1992).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방안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전명기 외(1998).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행도 외(1995). 청소년의 여가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예체능연구소.
- 조영승(1997). 청소년학 총론, 교육과학사.
- 려울진 외(1994). 청소년관계 법과 행정. 서울: 인간과 복지.
-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1997).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체계 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학회(1997).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한국청소년학회.
- 한상철 외(2001). 청소년지도론, 학지사.
- 한상린(2001). 수련관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방안, 서울청소년수련관.

한승희 외(1995). 청소년수련시설의 수련거리 운영모형 기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____외(1991).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방안연구, 한국 청소년연구원.

한준상(1996). 청소년문제, 연세대학교출판부.

한국교육개발원(1997).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방안, 서울시 수탁과제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수련협회(2002). 청소년수련관 운영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세미나자료집(2002). 지역사회 연계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____(2002). 학교 연계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____(2002). 효율적인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안,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

____(2002).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____(1997). 21세기 청소년 상 정립을 위한 세미나, 한국청소년개발원

Gager, R. (1982). Experiential education: strengthening the learning process In D. Conrad & D. Hedin (Eds), Youth Participation and Experiential Education (pp.31-39). New York: The Haworth Press.

Zeldin, S. & Krauss, S.(1995). Evaluation of the Advancing Youth Development Curriculum and Training Programs, Center for Youth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Washington DC. Educational Development.

ABSTRACT

A study on the Connection of Programs of Youth Training Centers and Schools to Improvement of the Youth Training Centers

Jeon, Hi-I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grams of youth training centers and schools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youth training centers.

For this purpose, 220 school teachers and youth leaders who had undergone at youth training centers and schools were sampled to be asked for the period from May to June, in 2003 but only 212 school teachers and youth leaders responded to the survey.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by using the SPSS10.0 program and a series of statistics test were conducted with including frequency, percentile, t-test, χ^2 -te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gram, it will be possible for the programs of youth centers and schools to connect their activities.

School teachers want to connect with youth center

* President of Friends of Korean Youth (M.Ed)

leaders on training their students activities and youth leaders in youth center do also.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a special facts about the desire of the youth centers for their dynamic activities. It is the connection of their programs between youth centers and school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considered to prepare for "the 5day class on week" as well as positively mutual youth programs.

But to activate the youth program which is necessary for the desirable education.

Firstly, we have to carry out youth program connecting with the special activity of a local school.

Secondly, it should be supported by active public information and financial investment.

Lastly, both school teachers and youth leaders should take an effort voluntarily.